

# 보건·복지 ISSUE & FOCUS

Korea Institute for Health  
and Social Affai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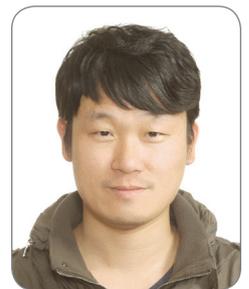
ISSN 2092-7117  
제 150호 (2012-31) 발행일 : 2012. 08. 03

**KIHASA**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
## 희망키움통장(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)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

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산형성지원을 탈수급 조건과 연계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촉진하는 '희망키움통장' 사업이 2010년부터 시행되었음

현재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약 1만 5천 가구(2010년 약 1만 가구, 2011년 약 5천여 가구)가 참여하고 있으며, 2012년 약 3천 가구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만 8천 가구에 이를 예정임



최현수 부연구위원

### 1. 희망키움통장 운영체계

#### ■ 희망키움통장 사업 개요

- (참여대상)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60% 이상인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
- (지원수준) 근로소득장려금(월평균 26만원)<sup>1)</sup> + 본인 저축액(5만, 10만원) + 민간 매칭액(매칭비율 1:1)
  - 본인 저축 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평균 수준 적립 시 참여기간(3년) 동안 약 1,700만원 적립 가능
- (지원조건) 3년간 사업 참여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
- (조기 탈수급 장려) 탈수급 시점(3년) 이전에 조기 탈수급한 경우에도 근로·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%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(적립) 가능
- (탈수급 이후 지원) 탈수급 이후 2년 동안 이행급여(의료·교육) 지급
- (소요재원 구성) 근로소득장려금(일반예산) / 매칭적립금(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재원)

○참여가구를 대상으로, 근로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며, 참여유지 및 탈수급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

1) 근로소득장려금 = 【근로 및 사업소득 - (최저생계비 × 0.6)】 × 1.05

근로소득장려금 산식 중 '1.05'는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더욱 많이 적립되는 체제로 설계하여, 근로활동 참여 및 성실한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고자 함.

-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탈수급 준비 지원을 위하여 전국 140여개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전문가를 통해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제공함

■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및 사용

-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탈수급 시 전액 지급되며, 주택구입 및 임대,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, 기술훈련,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인 3년 이내에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할 경우, 근로소득장려금 및 매칭 적립금을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과 그 이자만을 수령할 수 있음

## 2.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현황 변화 추이 및 예상 탈수급 성공률

■ 희망키움통장의 정책적 효과와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될 1차적 성과는 참여기간(3년) 동안 희망키움통장 유지여부와 참여기간 종료 이후 탈수급에 성공하거나 탈수급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전액 지급받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음

○ 그러나,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과는,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통해 탈수급에 성공하여 적립금을 수령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한 가구의 비율임

-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하며, 사업 참여기간에 이어서 탈수급 이후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

■ 이와 관련하여 시행 첫 해인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(1~6기)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적립현황, 중도해지 현황 변화 추이<sup>2)</sup>를 살펴보고, 이를 통해 사업 참여기간(3년) 경과 후 예상되는 탈수급 성공률을 제시함

○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, 선정기준 완화 전후를 기준으로 1~2기와 3~6기로 구분할 수 있음

- 1~2기(약 3,500가구): 상반기 참여(근로·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% 이상)
- 3~6기(약 7,500가구): 선정기준 완화(근로·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% 이상) 이후 하반기 참여

○ 특히, 사업 참여기간(3년) 종료시점까지 희망키움통장 참여를 유지한 가구의 탈수급 성공 또는 탈수급 선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, 참여가구 조사에서 탈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응답한 ‘탈수급 가능성’을 활용하여 2010년 전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대비 예상 탈수급 성공률을 제시함

■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(1~6기)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

○ 전체 사업 참여기간(3년) 중에서 참여기수에 따라 최소 15개월(6기)부터 최대 21개월(1기)까지 경과한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, 참여유지 비율은 80.7%로 매우 높으며, 월평균 약 1.25%p씩 감소하고 있음

- 이에 따른, 중도해지가구 비율은 19.3%(약 2,100여 가구)에 해당함

○ 참여유지가구의 85~90%(87.4%)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본인 저축액으로 선택 가능한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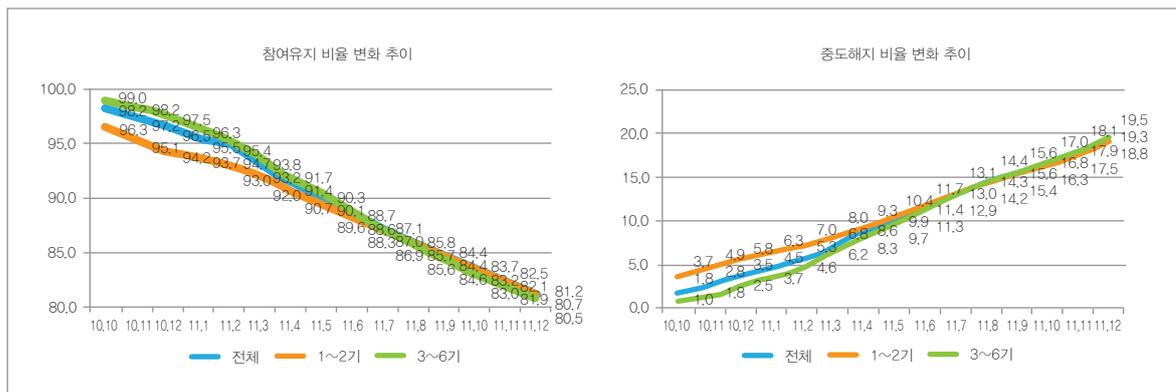
2) 2010년 희망키움통장 마지막 참여기수의 통장 개설시점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개월간 하나은행과 지자체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

- 반면, 5만원을 적립하는 가구는 참여유지가구의 약 5% 내외(5.7%)에 불과하며, 해당 월에 본인 저축액을 적립하지 못한 미납가구 역시 참여유지가구의 약 5% 내외(6.9%)에서 변동되고 있음

〈표 1〉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('11.12월 현재) (단위: 가구, %)

구분	참여가구	참여유지					중도해지 (c)
		소계 (b)	적립		미납		
			5만원	10만원			
전체	가구	11,014	8,890	508	7,768	614	2,124
	비율	100.0	80.7 (100.0)	4.6 (5.7)	70.5 (87.4)	5.6 (6.9)	19.3
1~2기	가구	3,466	2,813	140	2,524	149	653
	비율	100.0	81.2 (100.0)	4.0 (5.0)	72.8 (89.7)	4.3 (5.3)	18.8
3~6기	가구	7,548	6,077	368	5,244	465	1,471
	비율	100.0	80.5 (100.0)	4.9 (6.0)	69.5 (86.3)	6.2 (7.7)	19.5

〔그림 1〕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비율 및 중도해지 비율 변화 추이('10.10~'11.12)



■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선정기준 완화 전후(1~2기 / 3~6기) 참여기수별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비교

-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가구 비율을 살펴보면, 선정기준이 보다 엄격했던 1~2기(최저생계비 70%)의 경우 81.2%로 나타났으며, 3~6기(최저생계비 60%)의 경우 80.5%로 다소 낮게 나타남
- 본인 저축액을 비교해보면,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적립한 가구 비율은 1~2기(89.7%)가 3~6기(86.3%)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 - 반면, 본인 저축액을 적립하지 못한 미납가구는 1~2기(5.3%)가 3~6기(7.7%)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
  - 이러한 차이는, 선정기준 완화(최저생계비 70% 이상 · 60% 이상) 이후에 참여한 3~6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최저생계비 60~70%에 해당하는 가구가 다수 포함된 것에 기인함

■ 사업 종료시점 기준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 및 예상 탈수급 성공률

- 앞서 살펴본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현황 관련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3년 이후 희망키움통장 종료시점에서의 2010년 전체(1~6기) 참여가구의 참여유지비율을 예측함

- 자료수집 기간 동안 나타난 참여유지 및 중도해지 비율의 변화 추이가 유지되는 상황을 단순하게 가정할 경우, 종료시점까지 잔여기간 중 추가 중도해지 가구는 약 2,600가구이며, 이를 포함한 전체 중도해지 가구규모는 약 4,700가구(약 42.9%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, 2013년 사업 종료시점에서의 2010년 희망키움통장 전체 참여가구의 참여유지 가구규모 및 비율은 약 6,300가구(약 57.1%)로 예상됨

구분	신청 초기 중도해지 가구 ('10.10 이전)	자료수집 기간 (14개월) 중도해지 가구 ('10.10~'11.12)	'11.12 기준 전체 중도해지 가구	14개월간 월평균 중도해지 가구 (비율)	'13년 사업 종료시점까지 잔여기간 중도해지 예상가구	전체 중도해지 예상가구 (비율)	참여유지 예상가구 (비율)
가구	200	1,924	2,124	137.4 (1.25%)	2,599	4,723 (42.9%)	6,291 (57.1%)

○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,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가구가 탈수급 및 자립의지와 관련하여 스스로 응답한 '탈수급 가능성(%)' 을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참여가구 중 예상 탈수급 성공률을 산출함

- 참여가구가 스스로 응답한 최종 탈수급 가능성 평균 90.3%<sup>3)</sup>를 반영할 경우, 2010년 전체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사업 종료시점까지 참여를 유지하고 탈수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가구의 비율은 약 51.6%(=57.1%×90.3%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- 그러나, 사업 종료시점이 임박하면서 실질적으로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탈수급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, 탈수급 가능성을 70%까지 하향 조정할 경우 탈수급 성공률은 약 40%(=57.1%×70%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○ 이러한 성과는, '근로인센티브와 자산형성지원 및 사회서비스(탈수급 지원 및 이행급여) 제공을 통한 탈수급 촉진' 이라는 희망키움통장의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

- 따라서, 사업 종료시점(희망키움통장 참여 후 3년 경과시점)까지 참여유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사례관리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, 특히,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

○ 탈수급 성공률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, 사업 종료 후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의 적절한 활용과 기초보장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하는 가구의 비율임

- 사례관리를 통해 희망키움통장 참여유지 뿐만 아니라 탈수급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이행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탈수급 및 자립에 성공하여 수급자로 재진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

### 3.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경험 및 인식 변화

-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위해서 구축 중인 '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패널조사'<sup>4)</sup>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목적, 저축 관련 경험 및 사업 참여기간 중 인식 변화 등에 대하여 살펴봄

3) 탈수급 가능성이 100%라고 응답한 가구가 68.9%에 이르렀으며, 50% 미만이라는 응답은 1.7%에 불과함

4)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기초조사를 완료한 약 2,7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기간 중에 반기마다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을 진행 중임. 이러한 DB는 2010년 참여가구의 사업 종료시점인 2013년 탈수급 성공 또는 선택과 관련된 조사, 탈수급에 성공한 참여가구 및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수급상태를 유지한 가구에 대한 약 2년간의 추적조사 수행을 통해 2015년까지 구축될 예정임

■ 희망키움통장 참여목적

- 희망키움통장 신청 이유 또는 참여목적은, 주택 구입(약 40%)이 가장 높았으며, 자녀교육비 활용을 위한 자산축적(22.2%)과 창업자금 마련(14.5%)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
- 탈수급 자체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한 경우도 8.6%로 나타났는데, 이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산형성과 함께 수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립의지가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

■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탈수급 전제조건 등에 대한 갈등여부

- 약 41.8%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,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10가구 중 약 4가구는 3년 이후 탈수급 조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갈등이나 혼란을 거쳐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
- 갈등을 경험한 가구의 약 60%가 사업 참여 및 적립금 수령 조건인 3년 후 탈수급에 대한 부담으로 가장 크게 고민하였으며, 사업 종료 후 탈수급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으로 갈등을 경험한 가구 역시 전체의 약 25%를 차지함
- 참여기간 중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근로활동이나 정기적인 저축, 지자체 관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남

■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인식

-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의 긍정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자신의 저축과 매칭금을 통한 목돈 마련이라는 응답이 약 45%로 가장 높았음
- 탈수급을 통한 자립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수급자격이나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및 의지를 표출한 가구가 약 30%로 나타났음
- 한편, 근로소득장려금 제공이 생계급여 감소보다 일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가구도 21.1%로 높게 나타났음

■ 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방식 및 탈수급에 대한 인식

- 희망키움통장의 자산형성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근로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결합되어 운영 중인 근로소득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참여가구의 약 70%가 긍정적으로 평가함
- 이러한 근로소득장려금의 인센티브로 인해 약 67.2%가 근로활동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반면, 근로활동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1.4%에 불과하였음
-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후 적립금 수령을 위한 탈수급 조건 동의하는 가구는 약 70.7%로 나타남
- 참여가구의 약 44.4%가 3년 후 즉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일정기간 가진 후 탈수급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것은 사업 참여를 유지하더라도 마지막 종료시점에서 탈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줌
- 또한, 전체의 26.7%가 사업 종료시점에서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, 이행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탈수급을 지원해야 함

- 한편,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도 14.1%로 나타났는데, 이는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한 가구일지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재수급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

■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저축 관련 경험

○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전의 저축 경험

-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매월 정기적으로 저축했던 가구는 약 15.8%에 불과했으며, 여유가 있을 때에만 저축했던 가구는 약 25.9%로 나타나, 나머지 58.3%의 가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줌
- 금융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가구도 전체의 약 12%에 불과함
- 이러한 결과는 희망키움통장의 주요 정책목표인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이외에도 사업 참여과정에서 저축 및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정기적인 저축습관, 자산관리 등 자기관리 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줌

○ 미래의 상황에 대비한 자산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

- 전체 참여가구의 약 90% 이상이 자산 준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,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7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
- 요컨대,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들은,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시작하고 사례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례관리 및 금융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

○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의 규모의 평균은 약 8,000만원이었으나, 1천만원 이하로 응답한 가구가 약 23.8%, 3천만원 이하가 약 60%, 5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약 75%를 차지하고 있음

- 이것은, 희망키움통장 확대 검토 시 최종적으로 약 3천만원~5천만원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, 매칭비율, 적립기간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

○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 규모 및 준비율을 살펴보면, 평균 준비금액은 207만원에 불과하였으며 개별 가구의 ‘필요자금 대비 준비율’ 평균은 약 6.3%로 10%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

- 약 96.2%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1천만원 이하로 준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, 필요자금 대비 준비율 분포를 살펴보면, 30%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약 95%인 것으로 분석됨

■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 본인 저축액 마련방법

○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사업 참여과정에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, ‘절약하고 소비를 줄여’ 마련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‘소득을 늘리기 위한 추가 노력을 통해서’, ‘생계급여 등 정부지원 중 일부 사용’ 순서로 나타났음

○ 저축 포기에 대한 갈등여부 및 사유

-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과정에서 저축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면, 1~2차 조사에서 약 20% 내외의 가구가 이러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

- 비용부담 때문에 저축이 어려웠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으며, 탈수급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포기를 고민했다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으나, 1~2차 조사과정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

#### ■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 이후 긍정적 인식 변화

##### ○ 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단기 전망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전망

-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는 현재 시점보다는 6개월 이후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이러한 인식은 사업 참여과정에서 점차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
- 특히, 희망키움통장 사업 종료 이후 경제적 생활수준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, 10점 척도<sup>5)</sup>를 기준으로 중간수준에 이를 만큼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

##### ○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저축 습관 또는 계획에 대한 전망

- 희망키움통장 참여 종료 후 탈수급에 성공하더라도 ‘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저축할 예정’이라는 가구가 1~2차 조사에서 각각 67.7%와 72.6%로 나타나 약 5%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- ‘여유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이라도 저축하겠다’고 응답한 가구 역시 약 30%로 나타나, 어떠한 형태로든 저축을 하겠다는 응답은 전체 참여가구의 약 98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
-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중 약 60%가 사업 참여 이전에 거의 저축 경험이 없었던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, 70%를 넘는 가구가 향후 규칙적으로 저축 습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고 98% 이상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희망키움통장 참여과정에서 기초보장 수급가구에겐 나타남 변화 중에서 매우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

## 4.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

### ■ 시행 첫 해인 2010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본격적으로 탈수급을 시작하는 2013년 이후 운영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

#### ○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 확대

- 근로인센티브 제공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적립금을 통해서 탈수급 시점에서 소득역전을 방지할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참여대상을 자활사업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존 자활장려금과의 조정을 통한 근로소득장려금 적용방안 검토
- 일반노동시장 참여 수급가구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참여 기준을 근로·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% 이상에서 최저생계비 50%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대상 추가 확대 검토

#### ○ 탈수급 촉진과 재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강화

- 희망키움통장 참여와 적립금 수령이 탈수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
- 희망키움통장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, 우선 사업 참여부터 종료시점까지 3년간 참여유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탈수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

5) 매우 가난(1점) ~ 매우 부유(10점) 중에서 응답한 10점 척도임

- 사업 종료시점에 각종 정부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탈수급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행급여를 포함하여 각종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와 사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정책 조정 및 일선 사례관리자의 역할 수행 지원
- 또한,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수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의 탈수급 이후 관리체계 마련
- 나아가, 사업 종료시점에 탈수급에 성공한 가구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 수급자로 재진입하는 상황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검토

○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연장 및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

- 참여가구의 85~90%가 본인 저축액으로 최대인 1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며,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자금의 규모로 3천만원~5천만원을 희망하고 있음
- 따라서,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중 3천만원~5천만원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(5~20만원), 적립기간 연장 등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대 방안 검토
- 자산형성 측면에서 참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또는 3년 후 탈수급 선택시점에서 2년간 연장하는 방안(3+2)을 검토할 수 있으며, 이것은 사례관리를 통해 참여유지 및 탈수급과 자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음
- 또한, 희망키움통장 참여기간 중 본인 저축액 선택 범위 확대(5~20만원)와 더불어 본인 저축액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과정에서 참여가구의 저축 의지 제고

○ 희망키움통장과 근로장려세제(EITC)의 연계 확대

- 근로장려세제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방안 중 탈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이라는 효과성 측면에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집단임
- 따라서,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부터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우선 적용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탈수급 지원을 위한 근로유인형 정책패키지 연계를 강화해야 함
- 이것은 단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3년 동안의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근로장려금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탈수급 이후 발생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적용까지의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여 근로장려세제로 이행하도록 연계하는 의미를 지님
- 나아가, 연간 1회 신청 및 지급받는 근로장려금(최대 200만원)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추가 적립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매칭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탈수급 시 자산형성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

집필자 | 최현수(사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) 문의 | 02-380-8146  
 최준영(사회보장연구실 연구원)      문의 | 02-380-8191

발행인 | 최병호      발행처 |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(122-705) | TEL 02)380-8000 | FAX 02)352-9129 | <http://www.kihasa.re.kr>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<http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periodical/focus/list.jsp>